

「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」 제2차 포럼 결과보고

1. 개요

□ 주제 :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안

□ 일시/장소 : '20. 8. 24(월), 15:00~18:00,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

*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

□ 참석자 : 이유진 포럼 위원장 등 20명 참석

* 당초 100명 내외 열림 포럼을 계획하였으나,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기행에 따라 포럼 위원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추진

□ 주요내용

- (발제) 재생에너지와 농어촌 공존의 모색(김윤성 박사) 등 2건
- (토론) 좌장(이유진 위원장), 패널 4인 및 포럼 위원 등
- (포럼회의)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포럼 운영계획 논의

2. 주요 내용 및 결과

① (발제) '재생에너지와 농어촌 공존의 모색' 등 2건

- ① 재생에너지와 농어촌 공존의 모색 : 이익공유와 의사결정 참여를 중심으로
 - ▶ 김윤성 책임연구원((사)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)
- ② 농촌 바이오에너지와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화 방안
 - ▶ 이명규 교수(상지대학교)

□ 재생에너지와 농어촌 공존의 모색(김윤성 책임연구원)

-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및 농어업 공존형 재생에너지 사례
 - 주민참여형 증가는 정부의 REC 가중치 적용 확대, 지자체의 제도 변화(이격거리 규제⇒이익공유 확대) 등 제도환경 변화가 주요원인
 - 농업공존형 태양광(독일, 일본) 및 어업공존형 풍력(일본) 사례

-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추진 유형별 대표사례 지역경제 효과 비교
 - 협동조합 태양광(서울), 농업인 직접투자형 농촌태양광(3건), 펀드형 태양광(양천, 포천, 연천) 및 풍력(태백), 기금형 풍력(제주) 사례 비교
 - 지역(주민)이 주도한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높음
- 간척지 등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서도 계획입지 제도를 통한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등 절차적 주민참여의 확대 필요
-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공동개발자, 공동소유자, 이익공유 관리자 및 공간계획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**농촌 바이오에너지와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화 방안(이명규 교수)**

- 가축분뇨 방생량 증가 및 보관장소 부족, 악취발생, 잉여양분관리 시스템 부족, 경축순환 거버넌스 부재 등 가축분뇨의 문제점
- 주요 선진국 가축분뇨 활용 경축순환 사례
 - 국가차원의 가축분뇨 양분관리 시스템(미국), 바이오에너지 마을 중심 경축순환(독일), 농촌환경개발공사를 통한 집약적·통합적 관리 시스템(벨기에) 및 주민참여 중심 바이오매스 종합전략(일본) 등
- 가축분뇨의 경축순환을 위해 혐기소화액의 개질화 등 기술은 개발된 상태로 품질 인증 등을 통한 상품화 접근 및 이용 활성화 필요
- 주민수익형 경축순환 거버넌스 모형(실증모델)을 제시하고, 이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 참여형 수익창출 방안(수익사업) 제안

② **(토론) 주요 내용**

[좌장] 이유진 위원장(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)

[패널] 김소영 대표이사(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) 박혜린 대표(이노마드)
장민기 소장(농정연구센터) 정확균 연구위원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□ 김소영 대표이사(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)

- 성대골은 동작구 구민 가상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임. 동작구 내 태양광 부지를 찾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임. 이러한 고민이 지역과 함께 협동조합 결성 및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됨.
- 도농협동에너지자립마을을 목표로 완주군 고산촌마을과 하동군 하남마을과 에너지전환에 대해 교류 및 학습하고 있으며, 특히 하남마을은 완주군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, 타당성조사를 시작함.
- 도농협동에너지자립마을을 위한 지역의 여건을 이용한 활용계획, 도시 투자자로서 성대골의 역할, 상생 수익 모델 등을 고민 중임

□ 박혜린 대표(이노마드)

- 이노마드는 기존 화석중심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향상(신재생에너지, 소형분산형 수요 중심)을 위해 설립
- 탄소 없는 마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를 반영, 지난 7월 경남 하동군 지역 내 수자원환경을 조사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였으나, 의사결정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됨
-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하며, 지역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기업과 연결된 TF가 구성되는 방식이 필요

□ 장민기 소장(농정연구센터)

- 농촌의 경우 비즈니스의 단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며, 보상적 방식보다 도시와 협력적 방식으로 추진
-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점으로, 농촌 내에서의 순환 및 에너지 자립이 강조되어야 함
- 덴마크는 발전차액제도 폐지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감소한 반면,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로 급격히 증가함. 이는 농촌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는 형태의 정책 마련 필요함을 시사

□ **정학균 연구위원(한국농촌경제연구원)**

- 태양광 관련 재무적 분석을 통해서 얼마의 편익이 발생되어야 하는지는 잘 연구되었지만, 환경적인 부담과 특히, 10~20년 후 친환경적 처리 등에 따른 재무적인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함.
-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업 생산성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되며, 농촌경관, 환경문제 등을 다양한 분야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필요
- 경축순환 관련 고품질 액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, 농가들이 액비를 사용했을 때 작물을 재배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(인식의 전환)도 매우 중요함
- 환경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국가 단위 자원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음

3 정책연구영역 중간보고

□ **정책연구영역 중간보고(김윤성 책임연구원)**

□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여건 및 방향

- 배경 및 현황
 - 기후위기에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
 - 농어촌 분야의 에너지 사용 실태와 관련 정책 현황
-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
 - 現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
 -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의로운 방향

□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문별 논의 및 정책과제 제시

-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주제(안) 논의
-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주제(부문)별 정책과제 도출

- ① 농어촌 기후위기 및 에너지전환 데이터 기반구축 방안
- ②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(협업 거버넌스, 갈등해결, 지역경제 활성화) 및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안(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감축, 가축분뇨 활용 등)
- ③ “EU 그린딜” 등의 영향 및 “한국판 뉴딜”의 농어촌분야 과제
- ④ 기후에너지 관련 농어촌분야 추진체계(중앙지자체, 거버넌스) 및 법제도적 기반

※ 4회 포럼의 전문가 발제 및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

□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의견

- (남재작) 너무 많은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 포럼 내부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 핵심 아젠다를 설정 후 연구를 끌고 갈 필요.
- (임정수) 문제인 정부 출범 초기 추진했던 에너지 자립마을과 연계된 스마트 어촌 관련 연구가 있음. 이 내용을 참고하였으면 함
- (임성규) 연구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올해 제안할 부분과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부분을 구분하여 연구를 마무리 할 필요
- (이상준) 단계적으로 빨리 해야 할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미래 갖추어야 할 부분을 방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연구 추진
- (김종안) 데이터 기반구축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, 재생에너지는 사례 및 제도 중심으로 추진. 한국판 뉴딜은 제시된 아이템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포커스를 두고 검토할 필요
- (신근정) 연구의 내용이 지역의 에너지 계획이나 지방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어떻게 연결·소통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함
- (장민기) 주제와 연관된 사례를 발굴해서 수록하여 주시기 바람
- (이승재) 제안한 내용을 그룹별로 묶어서 논의할 필요

4. 포럼 운영계획

- 포럼 기획회의를 통해 포럼 아젠다 및 연구결과 등 정리방향을 설정하고, 이를 포럼 위원에 온라인 공유 및 의견 수렴하여 결정
 - ※ 제2차 포럼 및 정책연구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 포럼 기획회의 추진
- 제3차 포럼은 9월 24일(목) 내부워크숍 형태로 추진

3. 향후 주요 계획

- 포럼 기획회의(6차) (9월 첫째 주)
- 제3차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개최(9.24)

<행사 주요사진>



개회



개회



발제1



발제2



토론



토론